

'13년 1월 1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료문의 : 기술규제서비스과 정기원 과장, 김영인·류하나 전문위원(509-7256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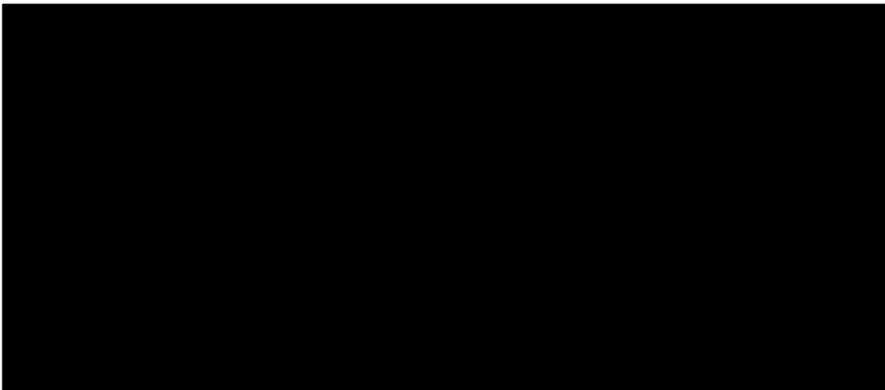
## WTO, 기술규제 통보문 1,560건으로 사상 최고치

- TBT 중앙사무국, 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발간 -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서광현)은 WTO 회원국이 알려진 시험·검사·인증 등 2012년 기술규제(TBT 통보문)가 총 1,560건으로 '95년 WTO가 설립된 이래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\* 1,251건('08) → 1,490건('09) → 1,419건('10) → 1,217('11) → 1,560건('12)

< 기술규제(TBT) 통보문 수 >



\* **무역기술장벽 (TBT, Technical barriers to trade)** :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,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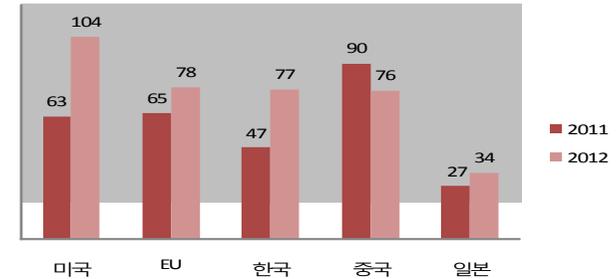
- 이는 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,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·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.

- 이와 더불어 매년 세 차례 개최되는 WTO TBT 위원회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, 우리 정부는 지난 해 16회에 걸쳐 '특정무역현안'으로 이의제기를 하였다.

\* **특정무역현안 (STCs, Specific Trade Concerns)** : WTO TBT 위원회에서 채택되는 논의 안건으로, 국가간 무역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규제를 다룸

- 이는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, EU의 통보문이 104건과 7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5%와 120%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사실과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.

< 주요국 TBT 통보문 수 >



- 즉, 미국, EU 등에서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에너지스타, 에코 디자인 규정, RoHS 개정안 등 환경, 에너지 규제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국내 수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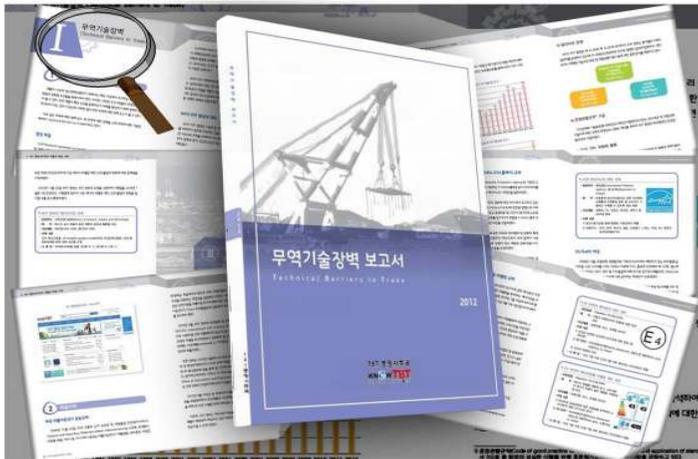
- 이에 따라, TBT 중앙사무국은 수출시 시험·검사·인증 등으로 인해 중소·중견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TBT 동향분석 및 국내 업계 대응사례를 모아 『2012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』를 발간 하였다.

- 이는 '08년 9월 TBT 중앙사무국이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발간되는 것으로, 국내 수출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중소·중견 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.

○ 특히, 보고서에는 EU의 타이어 형식승인 및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, 미국의 충전기 및 외부전원공급장치 시험기준 개정 등 국내 업계 대응 사례 및 현황이 국가별로 정리되어 있어 수출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- \* 국가별 : 미국(5건), EU(4건), 중국(3건), 기타 국가(10건)
- \* 분야별 : 전기전자(18건), 타이어(3건), 철강제품(1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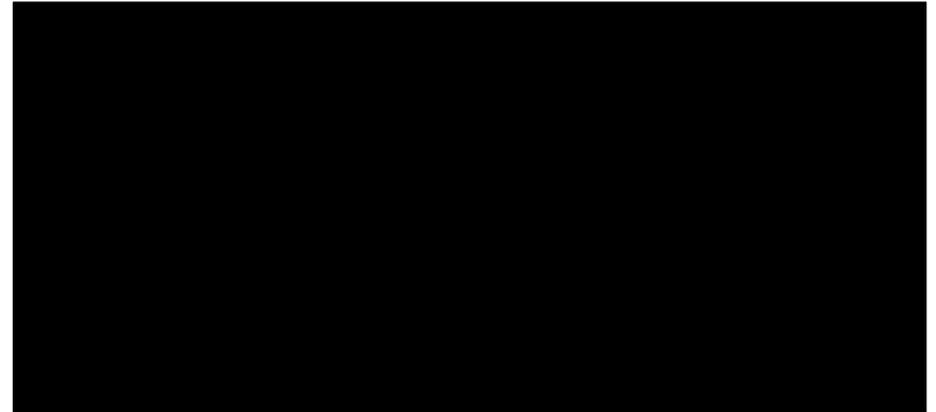
< 2012년 무역기술장벽(TBT) 보고서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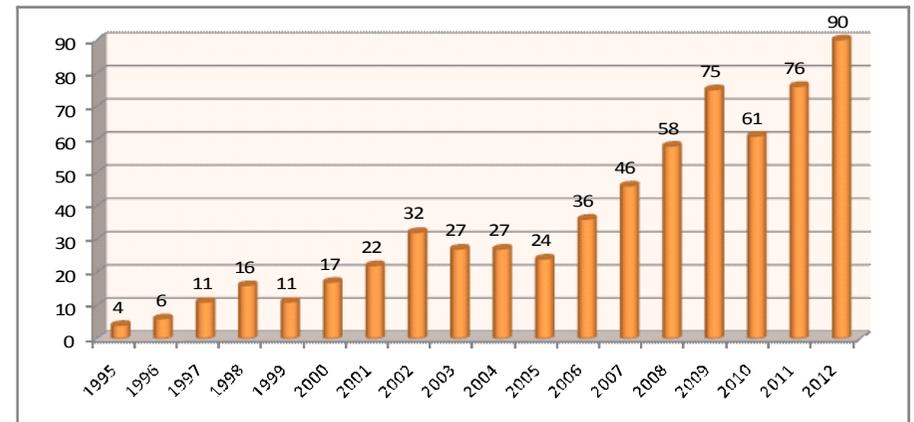
## [참 고 자 료]

### 1. WTO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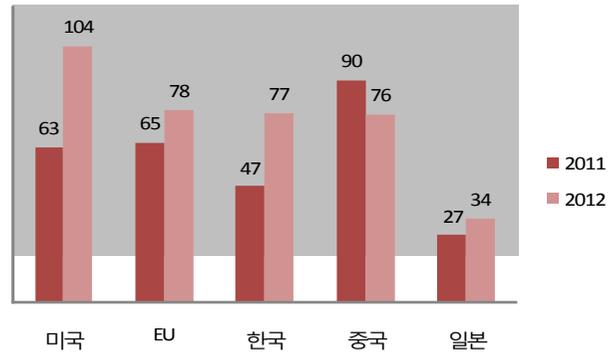
< 기술규제(TBT) 통보문 수 >



< 특정무역현안 제기 횟수 >



## 2. 전년 대비 주요국 통보문 수



## 3. 우리나라 관련 특정무역현안 제기 횟수

